



## 베트남

# 민간기업 육성기금 설립 활발

최근 베트남에서는 민간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설립이 잇따르고 있으며, 이는 경제발전의 견인차로서 민간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은행들의 심사체계에 미숙한 점이 많고 민간기업들도 까다로운 대출심사에 불만이 큰 상황이라, 민간기업에 대한 용자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중소기업 대상의 다양한 기금 출현

최대 상업은행인 베트남 외국무역은행(Vietcombank)은 지난해 말 5,000억 동(약 40억 엔)의 기금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한, 베트남 농업·지방개발은행도 농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베트남 공상은행은 금년 중 2,000억 동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기금을 설립하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은행들이 지원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자본금 10억 동 이하, 종업원 300명 이하의 기업을 의미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에서는 약 6,000개에 이르는 국영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은행이 설립하는 중소기업 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들이 민간 분야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각 은행들이 중소기업 즉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에 힘쓰는 이유는, 민간기업들이 국영기업 및 외자기업에 못지 않게 베트남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조업 생산액 중 민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3.6%로 국영기업(41%)과 외자기업(35.4%)에 근접하고 있으며, 성장률 측면에서는 민간기업들이 20.3%로 국영기업(12.7%)과 외자기업(12.1%)을 크게 앞서고 있어 성장잠재력은 오히려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

금년 6월 초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메콩 기업기금'을 설립했다. 동 기금은 1,600만 달러 규모로 출범하였으며, 베트남 등 메콩 강 유역 3개국의 민간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밖에 개도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지원기금(DAF)은 1999년 7월 설립 당시부터 인프라 정비 등 중장기 용자 이외에도 민간기업 대상의 용자를 취급해 왔다.

#### 민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여전히 부진

2000년 新회사법 시행으로 최저자본금 제도의 철폐 등 기업 설립이 쉬워진 데 힘입어 2001년 중에만 약 3만 5,000개 기업이 신규 설립되는 등 민간기업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영세한 민간기업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민간기업 지원이 부진한 것은 은행들의 심사능력 부족과 민간

기업의 부족한 담보제공 능력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국영기업 지원에 집중하면서 대출자산이 부실화되어도 정부의 보전이 뒷받침되는 방만한 지원관행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베트남 은행들은 지원사업이나 대상기업을 심사하고 리스크를 산정하는 능력을 별로 개발하지 못하였다. 또한, 국영기업에게는 무담보 지원이 허용되는 데 비해, 민간기업에는 담보 징구의 원칙이 경직적으로 적용되어 이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현재 베트남 은행들은 민간기업에 대한 용자 활성화를 위한 심사능력 제고의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국제금융공사(IFC) 등의 협조로 금융심사기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금융기구의 협력을 받아 심사능력 향상에 힘을 쏟기 시작하고 있다.

【동경사무소】